

고려 및 조선 초기 고분벽화와 중국 벽화와의 관련성 연구*

한 정 희**

- I. 서론
- II. 고려 및 조선 초기 고분벽화의 현황과 주제
- III. 十二支像의 표현
- IV. 松, 竹, 梅의 표현
- V. 생활풍속도
 - 1. 공양행렬도
 - 2. 出行圖(말과 마부도)
- VI. 결론

I. 서론

한반도에서는 고분벽화가 고구려시대에 크게 성행하였으나 벽화를 묘제로 사용하지 않았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벽화가 급속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에 들어와서는 다시 석실분을 이용한 벽화고분들이 축조되어 고구려벽화의 전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고려

* 이 논문은 2000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수.

의 고분벽화는 일부 내용이 알려져 왔고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고려의 고분벽화는 대부분 북한지역인 개성에 위치하고 있어 벽화의 내용과 사진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연구의 여건이 그다지 좋은 형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소개된 벽화만으로도 그 회화적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추구할 만한 흥미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와 조선 초기의 고분벽화는 이미 연구된 바 있지만 중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고분벽화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 중국의 고분벽화와의 관련성 문제는 아직 더 고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¹

고려와 조선 초기의 고분벽화는 현재 19기 정도가 파악되며 이 중 15기가 북한지역에 있고 4기가 남한 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것의 대부분은 당시의 수도였던 개성주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벽화도 대개 왕릉에서 나타나고 있다.² 대부분은 고려시대의 고분벽화들이며 밀양시의 朴翊墓만이 1420년, 즉 조선 초기에 조성되어 한국의 벽화시대를 마감하고 있다. 이 고분의 벽화도 고려적인 특색을 많이 보이고 있으므로 여기서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금 전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화적은 주로 불화가 많으며 일반 감상용 회화는 많지 않다. 따라서 고분벽화는 일반회화의 부족한 양상을 보충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고려의 고분벽화는 내용상에서 이전의 고구려 고분벽화와 달리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고려의 고분벽화는 그 새로움으로 인하여 매우 한국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중국과의 관련성을 보이는 예들이 많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 고분벽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관련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중국과는 다른 고려와 조선 초기 고분벽화의 독자성을 재확인해 보고자 한다.

¹ 고려의 고분벽화에 대한 연구로는 안휘준, 「고려시대의 인물화」, 『한국회화사연구』(시공사, 2000), pp.225-251; 동저, 「파주 서곡리 고려 벽화고분의 벽화」, 위의 책, pp.252-264; 동저, 「松隱 朴翊墓의 壁畫」, 『考古歷史學志』 第17·18 合輯(東亞大學校 博物館, 2002.10), pp.579-604; 정병모, 「공민왕릉의 벽화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 17호(2001.12), pp.77-95; 장호수, 「개성지역 고려왕릉」,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혜안, 2000), pp.145-168 등과 북한에서 나온 여러 발굴조사 보고서가 있다.

² 전체 고분벽화의 내용은 별첨(표 1)에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북한 개성시 주변에 있고 남한에 있는 것이 안동시의 西三洞 고분, 거창군 屯馬里 고분, 밀양시의 박익묘, 파주군 瑞谷里 고분 등이다.

II. 고려 및 조선 초기 고분벽화의 현황과 주제

고려와 조선 초기의 벽화고분은 19기가 보고되고 있으나 내용이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 자료가 풍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에 위치하는 고분들 중에는 도판이 전연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현재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를 분류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十二支가 표현된 것, 松·竹·梅 등의 나무나 꽃들이 표현된 것, 공양예물들을 나르는 모습, 말과 마부가 보이는 출행도, 별자리를 표현하는 星宿圖와 雲文圖, 오랜 전통의 四神圖, 奏樂天女像, 그리고 八卦圖 등을 꼽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동시대의 중국의 고분벽화 주제와 관련된 표현이 보이는 앞의 네 가지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³ 이 주제들은 대개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에 전래된 것들인데, 시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 중국과는 표현이나 기법이 달라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의 네 주제에 한정하여 어떤 면이 중국과 관련이 있으며 어떤 면이 중국과 다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십이지상이나 송, 죽, 매와 같은 나무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주제들이며, 인물풍속도는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있으나 내용상 차이를 보인다. 고구려 고분벽화가 唐代 이전의 중국 고분벽화와 관련되어 있다면 고려시대 이후의 고분벽화는 당대 이후의 중국 고분벽화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즉 唐과 그 이후의 宋, 遼, 金, 元 등의 중국의 벽화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 주제와 중국과의 관련성은 일부 조사되고 연구된 바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보다 이 문제에 집중하여 새로운 중국 고분벽화의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관련성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중국에서도 송, 요, 금, 원의 벽화들이 계속 새롭게 발굴되고 있어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많은 자료들이 현재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우리의 고려 고분벽화의 정체를 보다 잘 드러내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³ 성수도나 운문도도 양은 많으나 별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고 사신도는 중국의 한대와 한국의 고구려 때부터 전해오는 오래된 주제이므로 생략하고 주악천녀상은 중국에 유사한 예가 없으므로 논외로 하고자 한다.



도 1 십이지 중 용과 뱀, 1372년, 고려, 공민왕릉



도 2 매화와 참대, 943년, 고려, 顯慶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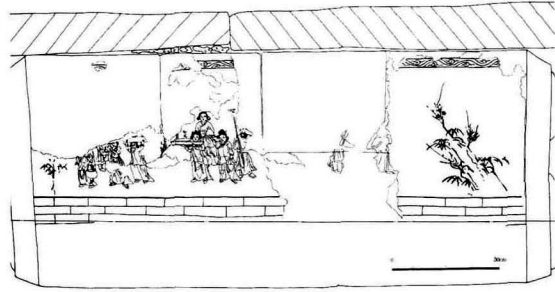
十二支神像을 벽화에 표현하는 것은 고려 고분벽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부각되어 왔다. 개풍군의 恭愍王陵^{도1}, 水落岩洞 1호분, 장단군 瑞谷里 權準墓와 같이 중요한 고분들에서 12支像이 많이 출현하여 주목을 끌게 되었다. 중국에서도 십이지상을 표현한 예들이 많이 발견되므로 그 관련성을 보다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무덤 밖에 護石으로 두르는 통일신라시대의 예들보다는 중국의 고분벽화나 墓誌石의 표현과 관련이 깊다.

松, 竹, 梅의 표현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발견된 바가 없어 우리의 독창적인 처리로 보았으나 최근 중국에서도 이런 표현이 보이는 벽화들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독창적인 표현으로만 해석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관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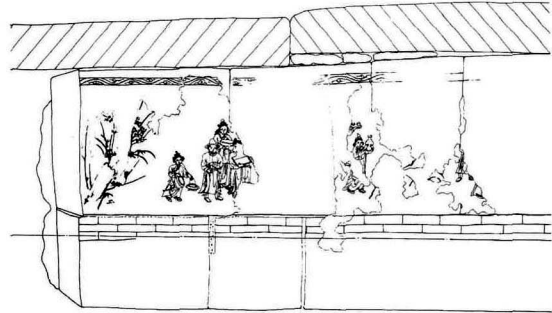
1993년에 개성에서 王建陵이 발견되었다.⁴ 이 능의 동벽과 서벽에 그려진 매화, 대나무, 소나무 그림은 벽화로써 동양에서 처음 나타나는 주제이므로 각광을 받았으며 고려의 독창

⁴ 현릉의 벽화에 대하여는 김영심, 「고려태조 왕건릉 벽화에 대하여」, 『조선예술』(1993년 2월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pp.52-53과 「왕건왕릉이 발굴되었다」, 『조선고고연구』 87호(사회과학원, 1993), pp.47-49와 같은 짧은 보고 기록이 있다.

도 3 서벽의 벽화, 모사도, 1420년,
조선 초기, 박익묘



도 4 동벽의 벽화, 모사도, 1420년,
조선 초기, 박익묘



성을 보여주기엔 충분한 것 이었다도2. 송, 주, 매는 원대에 많이 나타나는 문인화의 주제이므로 이 그림은 동양 최초의 문인화라고 하였으며, 943년에 조성된 왕건릉은 당연히 동양 최초의 문인화가 그려진 벽화고분이 된 셈이었다. 그러나 이 점은 이후 중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고분벽화들에 의해 최초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으며 내용적으로 문인화라고 보기 어려운 기법이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존에 확인된 개념도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00년에는 새로 밀양시에서 고려 말의 문신인 松隱 朴翊(1332~1398)의 묘가 발견되었다.⁵ 박익묘는 1420년(世宗 2)에 조성된 것이라 시기적으로는 조선 초가 되나 묘주인 박익이 1398년에 사망하였고 그가 정몽주, 길재, 이색 등과 함께 고려 말의 八隱으로 꼽히던 사람이라 고려 고분벽화의 특성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벽화에는 기존의 고려 고분벽화들에 보이지 않던 많은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여 고려 고분벽화의 경계를 넓혀주었다도3. 음식을 나르는 여인들, 말과 마부의 표현 그리고 윤곽선을 쓰지 않는 묵죽과 묵매도 등은 이전의 고려 고분벽화에서 보이지 않던 주제들이었다도4. 이들이 어느 정도 한국적인 것인지 중

⁵ 박익묘의 발굴보고서는 沈奉謹, 『密陽古法里壁畫墓』(세종출판사, 2002)가 있다.

국의 무슨 벽화들과 관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개 고구려나 요대의 인물풍속도와 관련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근래에 중국에서는 새로이 송, 요, 금, 원대의 벽화들이 다수 발견되어 이와 같이 기존에 알려졌던 한국의 벽화들의 주제와 내용들도 새로운 중국벽화들과의 비교를 통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이런 측면에서 시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중국에서 보다 많은 벽화들이 나타나면 우리의 기존의 개념을 수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본다.

III. 十二支像의 표현

십이지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능묘의 護石에 이미 나타나고 있어 한국에서도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특색이라 할 수 있다.⁶ 그러나 호석이 아닌 다른 형태로 표현된 십이지상은 중국에서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전국시대부터 형상화되기 시작하여 한대와 육조시대에도 線刻이나 陶俑으로 조형화되었다. 그리고 隋代에는 묘지석에 선각으로 사람의 몸에 얼굴만 동물로 표현하는 獸頭人身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벽화로 표현되는 십이지상은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시대의 婁叡墓에 보이는데 여기서는 십이지가 완전한 동물의 형상으로 묘사되었다.⁷ 예컨대 靑은 소의 모습으로 그대로 표현되었다. 다른 십이지도 모두 동물의 형태로 천정에 여기저기 나뉘어져 그려졌다. 당말에 이르러서는 벽화에서도 십이지가 사람의 몸에 얼굴만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人身獸首의 형태로 표현된다. 당의 황제릉인 靖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손에는 笏을 들고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다 도5. 옷은 붉은 윤곽선으로 칠해 있고 측면으로 서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6 한국의 12지상 능묘호석에 대하여는 강우방, 「신라 십이지상의 분석과 해석」, 『佛敎藝術』(1973. 1), pp.25-75; 張賢熙, 「통일신라 능묘 십이지상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1997) 등 참조.

7 도관은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墓室壁畫(文物出版社, 1989), 도68과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編, 『北齊婁叡墓』(文物出版社, 2004), 도20과 도21에서 볼 수 있다.

8 唐代와 당대 이전의 十二支에 대하여는 西嶋定生, 「中國·朝鮮·日本における十二支像の變遷について」,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卷(吉川弘文館, 1978), pp.295-337; Judy Chungwa Ho, "The Twelve Calendrical Animals in Tang Tombs", *Ancient Mortuary Traditions of China*(Far Eastern Art Council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1991), pp.60-83; 장현희, 앞의 논문, pp.7-14; 趙超, 『古代墓志通論』(紫禁城出版社, 2003)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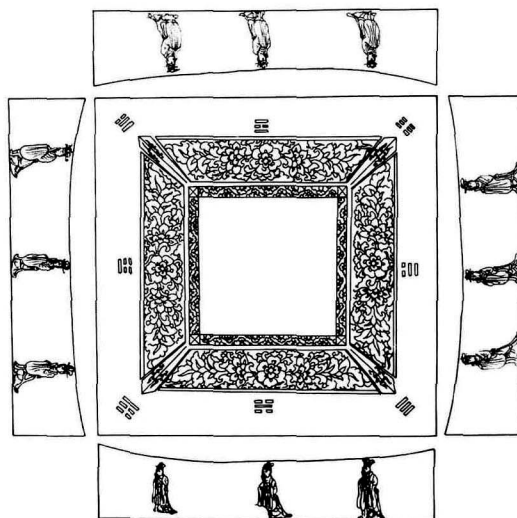
도 6 십이지 중 토끼, 910년, 당대, 石彥辭 묘지석, 碑林

도 5 십이지 중 말, 889년, 당대, 섬서성 乾縣 靖陵

이 벽화에 보이는 人身獸首의 모습은 唐代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벽화보다는 묘지석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⁸ 당대에는 紀寬 묘지, 高元珪 묘지, 姚懿 묘지 등 많은 예들이 있어 人身獸首의 모습은 이미 唐代에는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西嶋定生에 따르면 人身獸首 모습은 대략 757년에서 831년 사이에 존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인 바와 같이 당대의 전형적인 형태이다.⁹ 그러나 당말에 이르러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人身人首의 형태이면서 머리위에 십이지의 동물이 표현된 관을 쓴 모습이다. 이것을 人身獸冠이라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 형태는 묘지석에 먼저 나타난다. 910년 제작의 石彥辭 묘지석에는 앉아 있는 모습의 人身獸冠의 형태가 보이고 도6, 安守忠의 묘지석에는 人身人首에 십이지가 관에 그려지지 않는 것까지 등장한다. 즉 당대에 人身獸首에서부터 人身獸冠까지 다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唐末에 등장하는 人身獸冠의 형태가 이후 五代와 遼를 거치면서 보편화된다고 볼 수 있다.

⁹ 西嶋定生, 위의 논문, p.312.

그 다음 五代에는 이런 당말에 묘지석에 보이던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조각이나 벽화로 표현되고 있다. 오대에 조성된 吳越國의 왕실묘나 북방의 王處直墓에서는 人身人首에 손에 십이지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¹⁰ 이것은 오대 시기의 특징이면서 또한 人身獸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보여준다. 오월국의 왕실묘에서 발견되는 십이지상은 대개 人身人首에 손에 십이지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다. 대개 고부조로 처리되고 예외없이 손에 십이지를 형상화한 동물들을 들고 있는 모습은 손에 들기도 하거나 옆에 동물을 배치하는 王處直墓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형태는 이미 당말에 崔載의 묘지석에서도 보이지만 오월왕묘들이나 왕처직묘에서는 보다 크고 확실하게 고부조로 처리되어 천정 바로 밑의 벽감이나 벽면의 아래쪽에 안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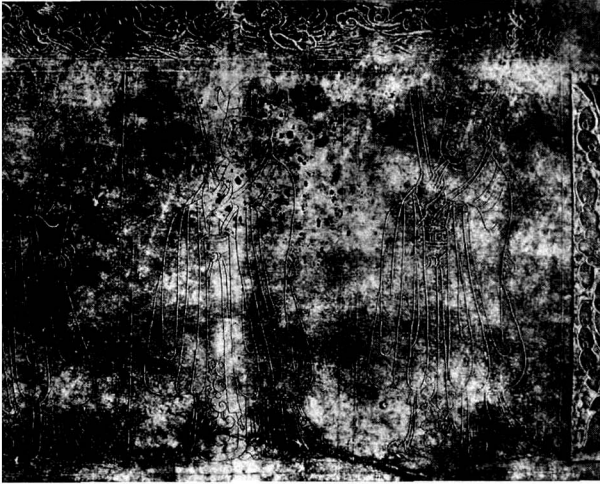


도7 묘지석, 958년, 오대, 섬서성 彬縣 馮暉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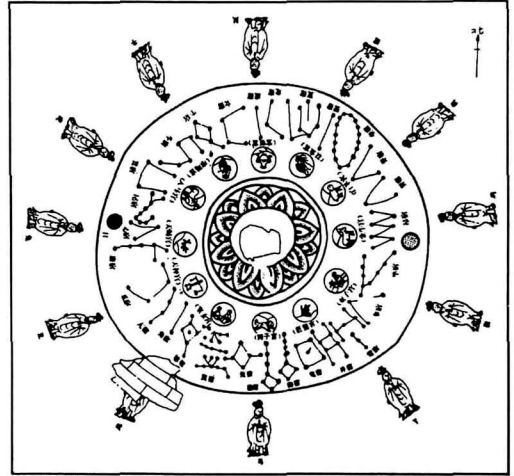
그리고 같은 오대의 958년에 조성된 馮暉墓에서는 묘지석에 人身獸冠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도7.¹¹ 이것은 당말의 人身獸冠의 표현이 계승되고 있는 것인데 형태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 즉 人身獸冠의 표현은 십이지를 손에 안고 있는 형태와 잠시 공존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에서는 십이지상이 묘지석의 둘레를 장식하는 선각으로 많이 제작되는데, 이 전통은 遼代에 최성기를 맞는다. 요대에는 많은 황제나 왕족에서부터 고위관리까지 대부분의 묘지석에 십이지상이 선각으로 새겨지고 있으며 형태는 人身獸冠의 모습이다.¹² 이제 십이지상으로 묘지석을 장식하는 것은 일반화되었으며 요대나 송대의 벽화에서도 발견되었다. 요

¹⁰ 『五代王處直墓』(文物出版社, 1998), 채색도판 29-32: 「杭州·臨安五代墓中的天文圖和秘色磁」, 『考古』 第3期 (1975), pp.186-194; 臨安市文物館, 「浙江臨安五代吳越國康陵發掘簡報」, 『文物』(2000. 2), pp.4-34.
¹¹ 『五代馮暉墓』(重慶出版社, 2001), 도48과 도49 참조.
¹² 蓋之庸, 『內蒙古遼代石刻文研究』(內蒙古大學出版社, 2002).



도 8 聖宗哀冊(묘지석) 뒷개 측면 세부, 1031년, 요대, 慶陵 출토



도 9 張恭誘묘 천정 벽화, 1113년, 요대, 宣化

대의 십이지상은 哀冊이라 불리우는 황제의 묘지석에 많이 보이는데 聖宗황제 도8, 道宗황제, 欽哀황후, 仁懿황후, 仁德황후 등의 왕족들의 묘지석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관리들의 묘지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³ 그리고 북경의 韓佚 遼墓, 宣化에 있는 遼墓 M2 張恭誘墓(1069~1113) 과 M5 張世古墓(1050~1108)에서는 벽화로 표현된 십이지상을 만날 수 있다 도9.¹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에서 자주 발견되는 십이지상은 이러한 당이나 오대의 형태가 아니라 송대나 요대의 십이지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遼와 고려는 서로 교류가 많이 있었고 遼의 기술자를 포함한 많은 이주민들이 고려에 넘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서 遼의 문화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¹⁵ 고려와 遼는 조공으로 문물을 교환하였

¹³ 田村實造, 小林行雄, 『慶陵』 1, 2卷(京都大學文學部, 1953)에는 요대 황제와 황후의 哀冊(묘지석)이 모두 실려 있다.

¹⁴ 北京市文物工作隊, 「遼韓佚墓發掘報告」, 『考古學報』(1984年 第3期), pp.361-380 ; 『宣化遼墓』 上, 下卷(文物出版社, 2001) 등 참조.

¹⁵ 고려와 거란과의 문물교류에 대하여는 金渭顯, 『고려시대대의관계사연구』(경인문화사, 2003); 金在滿, 『거란·고려 관계사 연구』(국학자료원, 1999)를 참조할 수 있으나 미술교류 관계에 대하여는 기술된 것이 없다.



도 10 십이지 중 용, 13세기, 고려,
水落洞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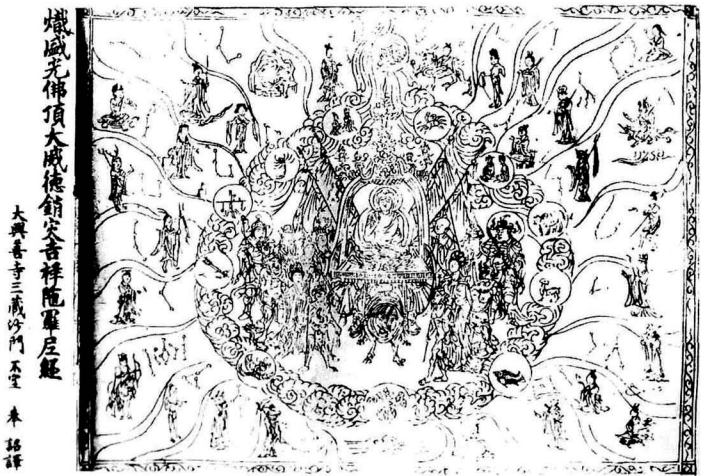


도 11 십이지 중 양, 14세기, 고려,
과주 瑞谷里 1호묘

으며 공무역과 사무역이 모두 활발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벽화는 고려에 들어왔던 遼의 기술자나 화가들에 의해 전해졌을 수가 있으며 그밖에도 고려인이 배워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전래경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영향관계는 유추해 볼 수 있다.

십이지가 그려진 고려의 벽화는 5기가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도판이 확인되는 것은 수락암동 1호분 도10, 서곡리 권준 무덤 도11, 그리고 공민왕릉 도1 등 3기이다. 이들은 모두 人身獸冠을 하고 있으며 손에는笏을 잡고 있다.¹⁶ 옷은 소매가 매우 넓은闊袖袍를 입고 있는 것은 모두 공통된다. 그러나 관의 모양에는 차이가 있는데 수락암동과 공민왕릉은 梁冠(중국은 進賢冠)을 머리에 쓰고 있으며 관 위에 십이지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서곡리 권준묘에

¹⁶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휘준, 「고려시대의 인물화」, 『한국회화사 연구』(시공사, 2000), pp.240-246; 정병모, 앞의 논문, pp.77-81. 철원군 내문리 무덤 12지는 선으로 자그마하게 그려진 것이 보고서인 량익룡, 「철원군 내문리 고려 돌상자 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1961, No.5), p.65에 있고 法堂坊 벽화는 『한국고문화논고』에 있으나 인쇄상태 불량으로 알아보기 어렵다. 최근 북한에서 나온 책에서 이 벽화 중 한 장면을 선명히 볼 수 있었다.



도 12 熾盛光佛 曼荼羅, 송대

는 介幘을 쓰고 옷은 直領袍를 입고 方心曲領을 착용하지 않은 점에서 앞의 두 고분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의복의 모습과 형상은 대체로 요대의 중국복식과 유사하며 그의 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¹⁷ 차이점으로는 공민왕의 무덤의 경우 옷이 곡선을 그리며 강하게 웨이브를 주면서 그려진 점 그리고 강한 채색을 쓴 것이 특징인데 이 점은 고려화된 것이며 독자적인 표현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수락암동의 경우 얼굴의 모습이 제대로 전하는 것을 보면 얼굴표정이나 자세 등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¹⁸ 이 점은 화가의 기량을 말해주며 중국의 대개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에 비하여 좀 더 여유있게 잘 표현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공민왕릉의 경우는 모두 정면을 향하고 있고 표정도 변화가 없어 다소 도안화되고 형식화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벽면을 크게 장식하고 있는 십이지상의 표현은 四神, 28宿, 12支와 같은 많은 신을 포용하고 있는 도교의 한 측면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遼代의 十二支를 요대의 불교신앙과 관련하여 특히 密敎로 해석하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¹⁹ 중국의 경우 특히

¹⁷ 복식에 대하여는 고부자, 「密陽 朴翊 墓 壁畫 服飾 研究」, 『密陽古法里壁畫墓』(세종출판사, 2002), pp.207-235; 이해진, 「고려 고분벽화의 십이지상 복식 고찰」(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등 참조.

¹⁸ 수락암동 벽화의 여러 모습은 김원룡 편, 『壁畫』(동화출판공사, 1974), 도109-115 참조.

¹⁹ Tansen Sen, "Astronomical Tomb Paintings from Xuanhu: Mandalas?", *Ars Orientalis*, vol XXIX(1999), pp.29-54; 이청천, 「요 · 선화시기 벽화묘에서의 시간 공간문제」, 『미술을 통해본 중국사』(중국사학회, 2004), pp.360-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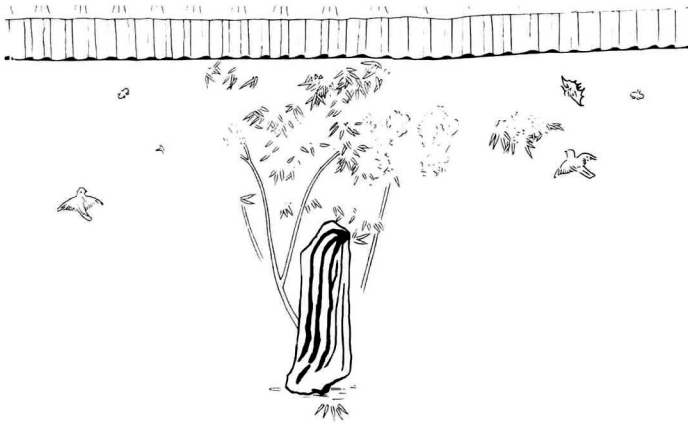
요대에는 대개 천정에 그려졌는데 천정에 그려질 경우에는 12궁 黃道나 별자리 28宿, 그리고 꽃들과 함께 그려지면서 그 의미가 우리와 차이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요대의 경우 십이지가 그려지는 것은 별자리나 黃道 12궁 그리고 28宿와 함께 熾盛光如來曼荼羅의 한 요소로서 등장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²⁰. 북두칠성 만다라나 星 만다라가 이와 같은 계보에 들어가는 밀교의 만다라인데, 이들은 믿는 자들에게 재앙을 물리치게 해 주며 병마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죽어서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극락에 태어나게 해 준다고 하여 널리 신봉되었다고 한다.²⁰ 불교 특히 밀교가 신봉되던 요대의 신앙의 한 형태로서 천정에 별자리, 28宿와 함께 십이지상이 등장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이 있는데 고려의 경우는 십이지상만 크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遼와 같은 의도에서 표현되었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Boston 미술관에 있는 熾盛光如來를 主佛로 하는 고려 불화의 존재는 고려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어느 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십이지와 별자리만 채택되어 그려졌을 수도 있고 전통적인 四神이나 별자리 그리고 십이지가 전통적인 무덤 수호의 의미로서만 조성되었을 수 있다.

IV. 松, 竹, 梅의 표현

매화, 대나무, 그리고 소나무 주제가 고려 고분벽화에서 주목을 끌게 된 것은 고려의 태조 왕건릉인 顯陵에서 1993년에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동벽에 매화와 참대가 함께 그려지고 서벽에 매화와 소나무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 밖에도 이러한 주제가 표현된 예로는 3대 定宗陵인 安陵에 참대와 나무가 그려지고 풍경까지 그려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풍경과 꽃과 나무는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24대 元宗陵인 韶陵에는 대나무와 소나무가 있으며 29대 忠穆王의 무덤인 明陵에도 꽃과 나무, 그리고 나비가 그려져 있다고 한다.²¹ 이러한 표현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던 것이며 중국에서도 별로 보고된 바가 없

²⁰ 武田和昭, 『星曼荼羅の研究』(京都: 法藏館, 1995). 고려 불화에서의 예로는 菊竹淳一·鄭于澤, 『고려시대의 불화』(시공사, 2000)도 63 〈熾盛光如來往臨圖〉에서 찾아볼 수 있다.

²¹ 安陵의 벽화에 대하여는 김중혁, 「개성일대의 고려왕릉 발굴보고 (1)」, 『조선고고연구』(1986년 1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pp.38-42. 韶陵과 明陵에 대하여는 왕성수, 「개성 일대의 고려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1990년 2호), pp.32-35 참조.



도 13 후실 동벽 벽화, 923년, 오대, 王處直묘



도 14 竹雀雙兔圖, 10세기, 요대, 法庫縣 葉茂臺 요묘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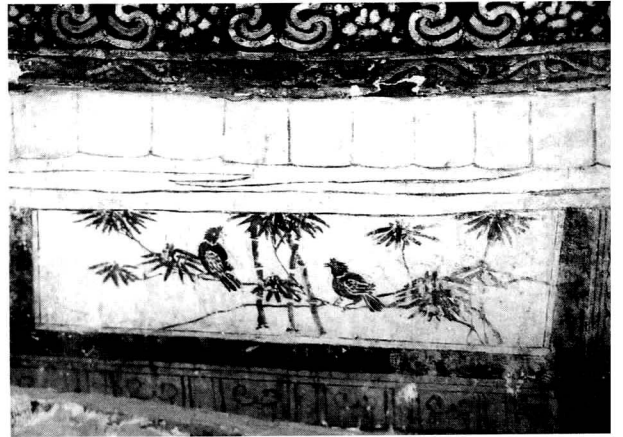
어 고려의 독자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남한에서도 이 주제가 발견되었는데 2000년에 밀양에서 발견된 朴翊墓에도 매화와 대나무가 동·서벽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여러 곳에서 송, 죽, 매들이 나타나므로 왕건릉만의 특징은 아니며 고려 고분벽화 전체의 특징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렇게 여러 무덤들에서 나무와 꽃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도판이 확보된 것은 이 중 현릉과 박익묘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알려진 경우와 비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릉의 경우를 보면 주제는 송, 죽, 매이나 대나무가 윤곽선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윤곽선으로 그려지는 것은 화원화가가 주로 그리는 전통적인 방법이며 唐末 五代 시기에 많이 구사되며 화원에서는 송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방식이다. 이 방식이 깨어지는 것은 11세기에 文同, 蘇東坡와 같은 문인화가들이 출현하여 한번에 먹으로 줄기와 잎을 그리는 묵죽화의 방식이 채택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는 것을 문인화라고 하므로 이 현릉의 벽화의 대나무 묘사방식은 문인화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도 15 梅竹圖, 1420년, 조선 초기, 朴翊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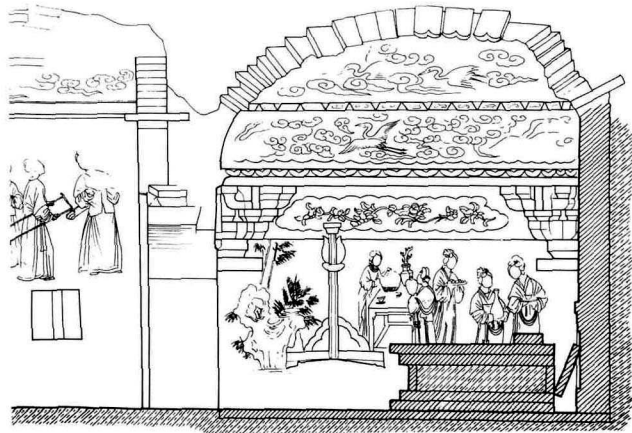
도 16 묵죽도, 14세기, 원대, 河北省 涿州 元墓

이런 방식으로 그려진 중국의 벽화는 923년에 조성된 五代의 王處直墓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윤곽선으로 선명하게 그려진 대나무를 찾아볼 수 있다^{13, 22}. 박락이 많아 전체의 모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나무의 모습은 잘 파악이 된다. 그리고 10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던 法庫縣 葉茂臺의 요묘 안에서 출토되었던 요대의 그림에도 역시 이런 기법의 대나무가 잘 보인다^{14, 23}. 많은 예가 있는 것은 아니나 대나무는 중국의 벽화에서도 확인된다. 王處直墓가 축조된 시기는 923년으로 943년의 현릉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현릉의 이 주제의 벽화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나무와 매화가지가 모두 함께 그려진 예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의 독자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현릉에 그려진 수목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세련되게 잘 그려진 것으로, 아마도 당대 최고 솜씨의 화가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이 원래의 무덤의 것인지 아니면 移葬 후의 것인지는 앞으로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시기가 많이 내려가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화풍을 전하는 朴翊墓에서의 대나무 그림은 윤곽선을 쓰지 않은 순수한 묵죽화의 솜씨를 보여준다¹⁵.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는 이미 문인화가 많이 보급되어 있던 때로서 이런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하겠

²² 대나무가 그려진 장면은 도13 외에도 『五代王處直墓』(文物出版社, 1998), 도10이 있다.

²³ 葉茂臺 遼墓에 대하여는 遼寧省博物館, 「法庫葉茂臺遼墓記略」, 『文物』(1975. 12), pp.26-39.



도 17 대나무와 공양상, 14세기, 원대,
西安 韓森寨 元墓

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목죽화가 벽화에 표현된 경우는 많지는 않으나 원대의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다.

河北 涿州의 元代 墓에서 보이는 벽화에는 우리나라의 목죽화와 유사한 예가 역시 그려지고 있다^{도16}.²⁴ 원대는 목죽화가 크게 성행하던 시기라 이 주제가 벽화에 까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목죽화는 원대에는 청화백자의 도자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화 이외의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익묘에는 그러나 매화가지가 목죽화의 뒤쪽으로 그려져 있고 앞에는 바위까지 그려져 있어 더 세련된 표현을 보여준다. 한편 涿州의 원대 묘에는 목죽화가 3곳에 그려지고 있어 박익묘와 같이 여러 번 그려지는 예를 볼 수 있으며 한 곳에서는 새들도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새가 그려지는 것은 요대의 무덤에서도 확인된다. 목죽화뿐 아니라 앞으로 살펴볼 생활풍속도의 경우에도 원대의 영향이 많이 보이므로 고려 고분벽화의 목죽화의 등장은 원대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원대의 西安 韓森寨 벽화묘에는 대나무가 바위와 함께 윤곽선으로 그려지고 연한 채색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 윤곽선을 쓰지 않는 목죽화와 윤곽선에 의한 채색 목죽화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17}. 목죽화의 경우 이러한 두 가지 다른 기법이

²⁴ 河北省文物研究所, 『河北涿州元代壁畫墓』, 『文物』(2004. 3), pp.42-60. 이 무덤에는 목죽화가 도7, 도8, 도9 세 군데에서 그려지고 있다.

함께 사용되는 것은 明代까지도 지속되었다. 화원화가들은 후대까지도 윤곽선으로 그리고 채색으로 마무리하는 전통을 유지시켜가며, 문인화가들은 윤곽선을 쓰지 않는 묵죽화를 고집하는데 원대 이후에는 직업화가들도 이러한 묵죽화를 필요에 따라 구사하기도 한다. 명대의 화원화가인 林良과 같은 화가는 화원이면서도 윤곽선을 쓰지 않는 묵죽화를 그리고 같은 화원화가인 邊文進은 윤곽선에 채색을 쓰는 기법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원대의 묵죽화는 馮道眞墓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어 중국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⁵ 당시의 松, 竹, 梅에 관한 문인들의 관심이 벽화에까지 반영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박익묘에는 매죽도가 유난히 여러 번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박익의 충절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²⁶ 그러나 원대의 탁주의 무덤에도 묵죽화가 3번이나 그려지고 있어 과연 충절로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져주며 그보다는 원대에 들어와 벽화와 일반회화의 결합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원대의 馮道眞墓에 일반회화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특별히 벽화의 전통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고려의 경우는 앞으로 安陵, 韶陵, 明陵에 그려진 벽화의 화면이 공개되면 더 잘 파악이 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949년에 조성된 안릉의 벽화에는 대나무가 윤곽선으로 묘사되고 있으리라 여겨지고 1274년의 소릉과 1349년의 명릉에는 시기가 늦으므로 윤곽선을 쓰지 않는 묵죽화가 사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보수적인 왕릉이므로 윤곽선을 쓰는 채색 대나무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된다. 즉 원대에는 두 가지 기법이 모두 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²⁵ 馮道眞墓에 대하여는 大同市文物陳列館, 「山西省大同市元代 馮道眞, 王青墓清理簡報」, 『文物』(1962. 10), pp.34-47. 이 무덤에는 山水圖, 觀魚圖, 論道圖, 侍童圖와 같은 일반회화 수준의 벽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원대에 이르러 벽화가 일반회화와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정에는 고려청자에 많이 보이는 雲鶴文이 그려져 있어 고려와의 관련을 느끼게 한다. 대나무는 동자가 차를 나르는 장면의 배경으로 나온다. 도면은 『中國美術全集』墓室壁畫, 도188 참조.

²⁶ 安輝濬, 「松隱 朴翊墓의 壁畫」, 『考古歷史學志』17·18 合輯(2002. 10), p.591.

V. 생활풍속도

생활풍속도라고 규정한 이 분야는 공양행렬도나 출행도와 같은 일상생활이 묘사된 것을 말한다. 원래 이 주제는 중국의 고분벽화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주제가 있고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많은 예들이 있어 상당히 포괄적인 주제를 일컫는다. 그러나 고려의 고분벽화에서는 이 주제의 표현이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1083년의 文宗陵인 景陵과 20대 神宗陵인 陽陵에 인물풍속 장면 같은 것이 있다고 하나 도판이 확보되지 못하여 살펴볼 수 없다.²⁷ 이들에 대해서는 이후 도판이 구해지고 난 후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 현재 확인되는 밀양의 박익묘에 집중하여 보고자 한다.

박익묘가 발견되기 전에는 고려에는 생활풍속도가 알려진 것이 없어 별로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무덤에서 새롭게 풍속적인 표현이 나타나 고려의 고분벽화를 다시 보게 되었다. 박익묘의 동벽에는 음식을 쟁반에 담아 나르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오른쪽에 한 남자가 지팡이를 들고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서벽에는 또 일군의 남녀들이 물건을 들고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남벽에는 말과 마부 한 쌍이 좌우로 나란히 서있다. 이러한 풍속의 표현은 고구려 벽화에도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이며 중국과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다. 동·서벽의 공양행렬도와 말과 마부의 출행도는 성격이 약간 다르므로 편의상 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양행렬도

이 공양행렬도를 묘주를 위한 장례준비 행렬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 행렬도는 당나라 때부터 계속 그려져 오던 공양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²⁸ 당대에는 663년의 新城公主墓, 668년의 李爽墓를 시작으로 706년의 李重潤墓와 李先蕙墓등에 시녀들의 공양행렬도가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 이들은 묘실에서 계속 거주하는 亡者의 영혼의 기거를 위하여

²⁷ 陽陵에 대하여는 김중혁, 「개성 일대의 고려왕릉 발굴보고 (2)」, 『조선고고연구』(1986년 2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pp.32-36.

²⁸ 장례준비 행렬도로 보는 견해는 고부자, 앞의 논문, p.215.



도 18 대나무와 공양상, 부분, 14세기, 원대, 서안 韓森寨 원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표현은 송대의 洛陽 邙山 宋墓, 그리고 요대의 北京市 齋堂村 遼墓로 이어지고 있으며 宣化의 遼墓群에도 음식공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²⁹ 요대 벽화에는 음식뿐 아니라 茶를 준비하는 備茶圖가 많이 그려져 있어 차도 공양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³⁰ 이러한 음식과 차를 공양하는 장면을 그리는 전통은 원대에 들어와 한층 일반화 하는데 내몽고 赤峰市 元寶山의 元墓, 山西省의 北峪口 元墓, 凌源 富家屯의 元墓, 馮道眞墓, 그리고 西安 韓森寨의 元墓 도18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³¹

밀양의 박익묘에 보이는 공양행렬도는 지금까지는 요대의 공양 장면과 비교를 많이 하였으나 공양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요대 벽화와 유사함을 보이거나 그것을 표현하는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遼代보다는 元代의 벽화들과 보다 근접함을 보인다고 여겨진다. 간략하게 무리지어 몇 군의 인물로 처리되고 있는 화면 구성이나 공양도와 묵죽화가 같은 화면에 등장하는 점, 그리고 마부와 공양상에 모두 보이는 鉢笠이라는 몽고인의 특유의 병거지 모자

²⁹ 邙山 宋墓에 여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잘 그려져 있다. 『洛陽邙山宋代壁畫墓』, 『文物』(1992. 12), pp.37-45. 그리고 『北京市齋堂遼壁畫墓發掘簡報』, 『文物』(1980. 7) pp.23-28도 좋은 예이다. 李清泉은 요대 벽화의 경우 후실의 의미는 亡者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 생활하는 공간, 즉 堂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음식을 나르는 여인들은 당에서 생활하는 망자를 시중드는 장면이라고 보았다. 李清泉, 『宣化遼墓壁畫中的備茶圖與備經圖』, 『藝術史研究』 4호(2002), pp.368-372.

³⁰ 李清泉, 『宣化遼墓壁畫中的備茶圖與備經圖』, 『藝術史研究』 4호(2002), pp.365-387.

³¹ 項春松, 『內蒙古赤峰市元寶山元代壁畫墓』, 『文物』(1983. 4), pp.40-48; 『凌源富家屯元墓』, 『文物』(1985. 6), pp.55-75; 『西安韓森寨元代壁畫墓』(文物出版社, 2004) 등 참조.



도 19 동벽의 벽화, 부분, 1420년, 조선 초기, 박익묘



도 20 서벽의 벽화, 부분, 1420년, 조선 초기, 박익묘

가 많이 보이는 점이나 인물이나 말들이 실제보다 키가 작게 그려지고 옷자락이 옆으로 퍼진 점 등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도19. 인물에 채색이 일부 들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선으로만 묘사하는 방식도 원대 벽화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도20.³²

이러한 특징들은 요대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던 것이며 원대의 고분벽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특징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익묘의 공양행렬도는 이와 유사한 중국의 예와 비교해 볼 때 원대의 경향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원으로부터의 영향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두 나라의 벽화는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중국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여성들이 쟁반을 드는 장면에서 쟁반의 크기가 매우 큰 것이 있고 주전자 같은 것을 들고 가는 모습, 그리고 머리에 함지박 같은 것을 이고 가는 모습은 중국벽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 점은 한국여성들이 당시 머리에 물건을 이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어린 소녀가 주전자를 들고 바삐 뒤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해학성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머리모양도 중국과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T자형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점, 매죽도가 화면의 일부로 조그마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풍속도와 대등한 비중으로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도 새로운 면모이다. 박익묘의 풍속

³² 元代 벽화가 채색보다 수묵이나 선으로 많이 그려지는 것은 수묵화의 성행과도 관련이 있지만 벽화의 쇠퇴를 상징하고 있다. 이전에 보이던 정성과 노력이 사라지고 간략히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벽화의 주제로 일반 감상용 회화의 주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벽화의 고유성과 전통성이 퇴색되어 가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장면은 박락이 심해 반 정도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더 많은 한국적 특징을 파악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안타깝다.

2. 出行圖(말과 마부도)

말과 마부들이 등장하는 출행도는 한국의 고분벽화에서는 그다지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나 중국에서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주제였다. 원래 출행도는 墓主가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과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진남북조시대에 즐겨 그려지던 것으로 婁叡墓, 灣漳墓, 徐顯秀墓 등에 두루 보이던 것이었다.³³ 이것은 병사들이 일렬로 서서 의장기를 들고 있는 의장행렬도와 함께 위진남북조시대에는 필수적으로 등장하던 주제였다. 이러한 출행도는 고구려의 安岳3호분과 덕흥리고분에도 보인다. 특히 안악3호분의 행렬도는 규모가 가장 크고 장려하나 고구려에서는 초기에 조금 보이다가 사라지는 주제이다.

출행도와 의장행렬도는 이후 당대에도 지속되었는데 李賢墓, 李重潤墓와 같은 왕자들의 벽화묘에 자주 등장하였으며 李先蕙墓나 新城공주묘, 房陵공주묘와 같은 공주묘의 경우에는 시녀행렬도로 대체되기도 하였다.³⁴ 당대의 후반기에는 宴會圖, 樹下人物圖, 奏樂圖와 같은 여러 종류의 생활풍속도가 증가하면서 순수 마차행렬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³⁵

이렇게 쇠퇴하던 행렬도가 다시 부상하는 시기는 요대에 들어와서이다. 遼代에 와서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행렬도 대신에 한필의 말과 마부만 그리는 단순한 형태가 나타나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림은 단순하게 되었으나 그 의미는 이전의 마차행렬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한 필의 말과 마부는 묘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출행을 나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필의 말과 마부로 이루어져 있는 요대의 전형적인 행렬도는 요대 초기의 923년 조성의 寶山墓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거란인이 말의 고삐를 잡고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³³ 육조시대 출행도의 모습은 『北齊婁叡墓』,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2004), 도1-도5와 山西省考古研究所, 『太原北齊徐顯秀墓發掘簡報』, 『文物』(2003. 1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³⁴ 당의 벽화에 대하여는 張鴻修, 『中國唐墓壁畫集』(嶺南美術出版社, 1994); 『陝西新出土 唐墓壁畫』(重慶出版社, 1997).

³⁵ 宿白, 「西安地區唐墓壁畫的布局和內容」, 『唐墓壁畫研究文集』(三秦出版社, 2001), pp.40-62.



도 21 출행도, 1018년, 요대, 陳國公主묘



도 22 남벽의 벽화, 1420년, 조선 초기, 박익묘

있는 모습이다.³⁶ 이러한 표현은 1018년의 陳國公主墓도21, 11세기의 庫倫旗 2호묘와 北三家 1호묘, 12세기의 宣化의 張恭誘墓 등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⁷ 이들은 거란인이 고삐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대체로 말과 마부가 크기도 비례에 맞추고 세부도 정확하게 묘사하는 사실적인 기법으로 착실하게 그려졌다. 말 안장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고 인물도 헤어스타일까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박익묘에 보이는 말과 마부도도22는 한 필의 말과 마부의 형태라는 점에서는 요대의 특징과 통하고 있으나 鉞笠을 쓰고 작은 키의 마부가 작은 말을 끌고 만화같이 그려졌으며 윤곽선만으로 처리되고 있는 모습은 원대의 벽화에 보이는 출행도와 유사하다. 원대의 北峪口墓나 赤峰의 三眼井墓에서 표현된 출행도는 가만히 서 있는 말과 마부도는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나 말과 마부가 아담하고 작게 그려지고 발립을 쓰고 있으며 윤곽선만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이 유사하다.³⁸ 北峪口 元代 墓에 보이는 여러 장면도23은 여러 가지

³⁶ 『內蒙古赤峰市寶山遼壁畫墓發掘簡報』, 『文物』(1998. 1), pp.73-95. 寶山墓는 당대 벽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요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중요한 벽화묘이다. 한 필의 말과 마부, 그리고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인물들을 모두 요의 독특한 복식과 두발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나무와 소철 등이 그려져 있어 이색적이다.

³⁷ 『遼陳國公主墓』(文物出版社, 1993), 도1과 도2와 『宣化遼墓壁畫』(文物出版社, 2001), 도85 참조.

³⁸ 項春松, 王建國, 『內蒙古昭盟赤峰三眼井元代壁畫墓』, 『文物』(1982. 1), pp.54-58; 山西省文物管理委員會, 『山西文水北峪口的一座古墓』, 『考古』(1961. 3), pp.136-141 등 참조.



도 23 벽화들 모음, 14세기, 원대, 山西省 文水縣 北峪口 元墓

면에서 우리의 박익묘에 가장 근접하는 표현기법을 보여주는 중국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을 들고 나르는 모습이나 말을 타고 가는 인물 표현이 크거나 표현법에서 박익묘와 가장 가깝게 보인다. 공양행렬도의 표현이나 출행도의 표현 모두에서 원대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에서 박익묘의 벽화는 요대보다는 원대의 형태에 보다 가깝다고 판단된다.

고려 후반부는 원의 지배 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대의 벽화표현이 박익묘에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익묘에서 발립 위에 다시 깃털 같은 것을 꽂고 있는 점이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게 그린 점, 그리고 한 필의 말과 마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중국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두 필의 말은 아마도 묘주와 그의 부인을 위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서로 바라보는 처리는 고려의 독자적인 표현이라 여겨진다.

VI. 결론

고려의 회화는 불화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다. 반면에 벽화에서는 19기의 벽화고분을 통하여 많은 장면들이 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벽화들도 4/5 정도가 북한에 위치하여 그 내용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알려진 벽화들도 그 의미와 내용을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중국벽화와와의 관련성이 그 한 예이다. 그 관련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고려의 벽화가 매우 창의적이라 중국에 없는 것이 많다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서 새로이 발견된 많은 중국의 벽화들과 비교를 시도해 봄으로써 기존의 인식이 합당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파악하게 되었다.

주제로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十二支像과 송, 죽, 매와 같은 수목들, 그리고 생활풍속도에 한정하여 검토해 보았는데 생활풍속도는 다시 공양행렬도와 출행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십이지상의 경우는 중국의 십이지상 중에서 人身獸冠의 형태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았다. 人身獸冠의 십이지상은 당대부터 보이나 고려와 관련 있는 것은 요대의 십이지상들로서 요대에는 벽화와 묘지석에 많이 보이는데 요와 교류가 많았던 고려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松, 竹, 梅는 왕건릉인 顯陵에서부터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동양에서 최초로 표현된 문인화의 주제라는 해석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대나무에 윤곽선을 쓴다는 점에서 문인화는 될 수 없으며 윤곽선을 쓰는 대나무도 현릉보다 연대가 올라가는 王處直묘에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벽화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릉에서 보다시피 매화와 소나무를 함께 그리는 것은 중국에 보이지 않는 고려적인 특색이고 높이 평가할 시도라고 보았다. 그리고 조선 초기의 박익묘에 보이는 매죽도는 그의 충절을 상징하기 위해 벽면에 여러 번 그려졌다는 의견이 있는데, 원대의 고분벽화에도 여러 번 그려진 묵죽화가 보여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묵죽화 자체는 일반적인 원대의 문인 묵죽화의 솜씨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생활풍속도는 밀양의 박익묘에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이 주제는 주로 遼代의 생활풍속도와 비교해 왔는데 본고에서는 원대의 벽화묘에 보이는 생활풍속도와와의 관련성을 지적하였다. 주제는 이미 요대의 무덤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기법적으로는 원대의 벽화표현과 유사하다. 크기를 작게 아담하게 그리고 윤곽선만으로 표현하는 점 그리고

만화와 같이 코믹하게 그리는 점, 원대 특유의 발립을 표현한 점 등이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음식을 머리에 인다든지 큰 합지박 같은 것을 안고 간다든지 말과 마부를 좌우로 마주보게 그리는 것 등은 중국 고분벽화에서는 볼 수 없는 고려적인 특색으로 보았다. 의미상으로는 묘주의 장례행렬도이기보다는 무덤 안에 있는 묘주를 위한 공양행렬이며 음식과 차가 준비되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 고분벽화들의 내용이 더 알려지면 보다 나은 해석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기에 남북교류에 기대를 걸어보며 계속 새롭게 발굴되는 중국의 벽화고분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상호 비교를 통하여 보다 나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본다.

* 주제어(key words) — 고려벽화(Goryeo Wall Painting), 조선 초기 벽화(Early Joseon Wall Painting), 十二支 (Twelve Calendrical Animals), 出行圖(Procession Scene), 墓誌石(Epitaph)

■ 투고일 2005년 6월 10일 | 심사일 2005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2005년 8월 1일 ■

표 1 고려 및 조선 초기의 벽화묘

명 칭	연 대	벽화내용		위 치	출 전
		벽	천정		
顯陵 (1代 太祖 王建陵)	943년	동벽: 매화, 참대, 청룡 서벽: 매화, 소나무, 백호 북벽: 벽화 흔적 (현무?)	성수도 (8개의 별)	개성시 開豐郡 解線里	고고학연구소, 「왕건왕릉 (고려태조현릉)이 발굴되 었다.」, 『조선고고연구』 1993년 2호, pp. 47-48.
安陵 (3代 定宗)	949년	동벽: 풍경, 참대, 꽃, 나무 남벽: 건물 서벽, 북벽: 벽화 흔적	천문도	개성시 開豐郡 高南里	김중혁, 「개성일대의 고 려왕릉 발굴보고(1)」, 『조 선고고연구』, 1986년 1호, pp. 39-42.
景陵 (11代 文宗)	1083년	인물 풍속	천문도	개성시 板門郡 仙跡里 景陵洞	왕성수, 「개성일대 고려 왕릉에 대하여」, 『조선고 고연구』, 1990년 2호, pp. 32-35.
西三洞	12세기 초	四神圖, 인물도	성수도, 운문도	경북 안동시 西三洞	임세권, 『서삼동 벽화고 분』, 안동대학교박물관, 1981.
裕陵 (16代 睿宗)	1122년	벽화 흔적		개성시 開豐郡 五山里	김중혁, 「개성일대의 고 려왕릉 발굴보고(2)」, 『조 선고고연구』, 1986년 2호, pp. 32-36.
智陵 (19代 明宗)	1197년	四神圖로 추정	(성수도)	개성시 長豊郡 지릉동	
陽陵 (20代 神宗)	1204년	동벽, 남벽: 벽화 흔적 서벽, 북벽: 인물 흔적 (풍속)	천문도 (직경 123 cm의 원 안에 북 두칠성 등 158개 의 별무리와 달)	개성시 開豐郡 高南里	김중혁, 「개성일대의 고 려왕릉 발굴보고(2)」 왕성수, 「개성일대 고려 왕릉에 대하여」
韶陵군 제5릉 (24代 元宗)	1274년	대나무, 소나무	천문도	개성시 開豐郡 韶陵里	왕성수, 「개성일대 고려 왕릉에 대하여」
高陵 (25代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	1296년	벽화 흔적			김중혁, 「개성일대의 고 려왕릉 발굴보고(2)」
屯馬里	12-13 세기	동실: 천녀 서실: 주악천		경남 居昌郡 南下面 屯馬里	『거창둔마리 벽화고분 및 회곽묘 발굴조사보고』, 문화재 관리국, 1974
水落洞 1호분	13세기	동, 서, 북면 3면에 걸쳐 상단: 12주 하단: 사신도		개성시 開豐郡 高南里	김원룡편, 『국보』, 동화출 판공사, 1974

명 칭	연 대	벽화내용		위 치	출 전
		벽	천정		
明陵 (29代 忠穆王)	1349년	나비, 꽃 서벽: 꽃, 나무	천문도	개성시 開豐郡 煙陵里	왕성수, 「개성일대 고려왕릉에 대하여」
聰陵 (30代 忠定王)	1351년	벽화 흔적		개성시 開豐郡 五山里	김중혁, 「개성일대의 고려왕릉 발굴보고(2)」 리창언, 「고려돌칸흙무덤의 몇가지 문제」
七陵 4호분	고려 말	벽화 흔적	북두칠성	개성시 開豐郡 解線里	김중혁, 「개성일대의 고려왕릉 발굴보고(2)」
法堂坊 2호분	고려 중기 이후	사신도, 獸冠人身의 12支	일월성신	경기도 坡州郡 津西面	이홍직, 「고려 벽화고분 발굴기」, 『한국고문화 논고』 pp. 3-36.
瑞谷里 1호묘 (權準墓?)	14세기 (1352년?)	獸冠人身의 12支	성수도, 북두칠성, 운문도	경기도 坡州郡 津東面 瑞谷里	『과주 서곡리 고려 벽화고분 발굴조사 보고서』, 1993
玄陵 (31代 恭愍王)	正陵 : 1365년 玄陵 : 1372년	동, 서, 북면: 12支 각 4상씩 獸冠人身의 12지상	해, 북두칠성, 三星그림 한쌍	개성시 開豐郡 解線里	전주농, 「공민왕 현릉」, 『고고학자료집 3. 각지유적정리보고』, 과학원출판사, 1963, pp. 220-235.
鐵原郡 內門里		12지신, 팔괘도		강원도 鐵原郡 內門里	양익률, 「철원군 내문리 고려돌상자 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1년 5호
朴翊墓	1420년	동, 서벽: 인물풍속, 매화, 대나무 남벽: 말과 마부	성수도의 흔적	경남 密陽市 古法里	심봉근, 『밀양고법리 벽화묘』, 세종출판사, 2002

* 벽화고분의 위치는 이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향토대백과』 2권 개성시편, 2004년에 근거해 새로 편성된 행정구역을 반영한 것이다.

국문초록

고구려시대의 벽화에 비하여 고려시대에는 많지 않은 벽화들이 제작되었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19기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고려와 조선 초기의 무덤에서 발굴된 벽화는 4/5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도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중국벽화와와의 관련성 분야이다. 최근에 중국에서 새로운 벽화들이 많이 발견됨으로써 이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고려의 벽화가 어느 부분이 중국과 유사하고 다른지를 예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고는 고려와 조선 초기의 벽화들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재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고려의 벽화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十二支像, 松, 竹, 梅와 같은 수목 표현 그리고 생활풍속도에 집중하여 검토해 보았으며 생활풍속도는 다시 공양행렬도와 출행도로 나누어 보았다. 우선 십이지상의 경우는 人身獸冠의 형태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遼代의 벽화나 墓誌石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요와의 교류가 많았던 고려로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십이지상은 고려 전반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며 黃道 12宮과 28宿 등과 함께 불교의 密敎曼荼羅의 성격을 갖는 요대와 달리 고려에서는 무덤을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松, 竹, 梅와 같은 나무들이 벽화에 표현되는 것인데 왕건릉인 顯陵에 보인다. 이것은 기존에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예라고 하였으나 현릉보다 시기가 빠른 중국 오대 시기의 王處直묘에서 보이고 있어서 처음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대나무에 윤곽선을 쓴다는 점에서 최초의 문인화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나무와 매화까지 그려진 예는 중국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현릉의 특징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이 주제는 그 밖에도 安陵이나 韶陵, 그리고 明陵에도 있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어 도판이 확보되는대로 보충해야 할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생활풍속도는 景陵이나 陽陵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밀양의 조선 초기의 朴翊墓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박익묘에는 기존의 고려벽화에 잘 보이지 않던 공양행렬도와 출행도가 묘사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주제는 주로 遼代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그동안 검토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요대보다는 元代의 벽화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새로이 발견된 원대묘의 벽화에는 인물이나 말을 크기를 작게 그리는 방식이나 윤곽선으로 표현하는 법, 그리고 묵죽화와 한 화면에 배치하는 법 등 여러 면에서 박익묘에서의 벽화표현기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합지박 같이 큰 그릇을 들거나 머리에 이

는 법 그리고 말과 마부를 좌우 대칭으로 보게 한 점 등은 중국과는 다른 면모라고 보았다.

고려의 전반기에는 십이지나 매화,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꽃나무와 같은 주제들이 성행하고 요대의 벽화와 관련성이 있는 데 반하여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로 보면 공양행렬도와 같은 생활풍속도로 변모해 간다고 생각된다. 후기에서는 요대보다는 원대의 화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점은 원과의 교류가 많아지고 원의 지배 아래 오래 있었기에 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벽화를 그리는데 있어서 주제상으로는 遼代와 元代가 유사함이 있지만 표현기법은 큰 차이가 있어 요와 원 두 나라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선 초기의 박익묘의 경우는 행렬도와 출행도 그리고 묵죽화 등 벽화의 모든 주제들이 원대의 벽화와 관련이 깊고 기법적으로 가장 근사한 표현을 보여준다.

북한에 있는 벽화들의 내용이 보다 더 알려지면 고려벽화의 내용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으며 자료가 빈약한 일반회화의 공백을 다소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자료 공개에 기대를 가져본다. 아울러 계속 새로이 발견되는 중국의 벽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한국과 중국의 벽화 간에 비교적으로 보는 시각도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Stylistic and Iconographic Comparison of Goryeo and Early Joseon Murals with Liao and Yuan Murals

Han Junghee

In comparison to the Goguryeo period (B.C. 37–A.D. 668), are a small number of mural paintings created in the Goryeo period (918–1392). However, they are still sufficient examples to lead us to understand and to examine new stylistic and iconographic languages emerged in Goryeo tomb decoration. Since the four fifth parts of the nineteen mural paintings of th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are located in North Korea and most of their visual sources are not yet available,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ill be limited into only visually available examples. However, recently excavated tombs in China allow us to create a fresh point of view b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compare Goryeo and early Joseon murals to those of Liao and Yuan periods. I believe such an approach inspires us to challenge previous scholarships on Goryeo and Joseon mural paintings as well as to redefine their artistic significance.

Goryeo mural paintings deal with various subject matters, however, I will focus on discussing the following pictorial motifs such as the deities of the twelve Caledrical Animals, pine, bamboo, plum blossom, and genre scenes; procession of tribute bearers and departing procession. The deities of the twelve zodiac signs usually figured in the form of a human body with an animal crown, which served as the main motifs in tomb murals and stones of the Liao period, became increasingly noticeable in the tomb of the first half of the

Goryeo period. Such an iconographic analogy explicitly reveals their frequent artistic interactions. Unlike those in the Liao tomb that mainly functioned as a sort of esoteric buddhist mandala along with the signs of zodiac and Twenty-eight lunar mansions, the deities of the twelve Calendrical Animals of the Goryeo murals seemed to serve the purpose of protecting tombs.

Pine, bamboo, and plum blossom wonderfully decorate the walls of Hyeonrung, the grave of Wang Geon, the founder of the Goryeo dynasty. Hyeonrung has been pointed out as the only known example to be decorated with such motifs. However, these subject matters had been already appeared in the Wang Chuzhi's tomb of the Five dynasties. At the same time, it is still hard to define the bamboo painting in Hyeonrung as the earliest literati painting for its use of firm outlines. Nonetheless, the depiction of pine and plum blossom in the Hyeonrung should be considered to be highly important because none of Chinese mural paintings in the same period employ those three motifs in a tomb. Besides Hyeonrung, Anrung, Sorung and Myeongrung are also reported to convey these motifs, however we cannot develop further discussions for the lack of their visual sources.

Finally, I would like to discuss genre scenes. Generally, Gyeongrung and Yangrung are known for being decorated with genre scenes, but it is hard to obtain further information other than that. Therefore, I will discuss Park Ik's tomb mural located in Milyang, of the early Joseon period. This tomb draws scholarly attention for its genre scenes such as a procession of tribute bearers and a departing procession. The procession of tribute bearers and departing procession in this tomb have been generally discussed in relation with Liao mural paintings, but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y have a closer artistic associations with those of the Yuan period. For example, a manner of rendering the size of human figures and horses in a rather exaggerated small scale, and delineating them with firm outlines, and a way of arranging them along with ink bamboo on the same picture plane are the pictorial elements shared by both Park Ik's and newly excavated Yuan tombs' murals. However, the way of holding a big bowl with hands or on a head, and placing a set of horse and a groom facing each other cannot be seen in Yuan mural paintings.

In analyzing from Goryeo and early Joseon mural paintings, I have observed that the deities of the twelve Calendrical Animals, pine, bamboo, and plum blossom were major

motifs in the Goryeo tomb decoration, and that had a close artistic relationship with those of the Liao period. On the other hand, genre scenes such as a procession of tribute bearers and a departing procession gradually became dominant motifs in murals of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I found that the pictorial languages employed in the later Goryeo period are closer to those of the Yuan period since Goryeo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Yuan dynasty, which led to frequent cultural and artistic interactions. Although there seem to be no explicit iconographic distinction between Liao and Yuan mural paintings, it is still worth noticing that the choice of pictorial expressions clearly characterizes their periodical stylistic features. I believe that motifs such as processions of tribute bearers and departing processions, and ink bamboo found in Park Ik's mural paintings found their artistic inspiration in Yuan mural paintings.

I expect that when more mural paintings in North Korea come to light and become visually available, various and profound discussions over Goryeo mural paintings will be possible as well as bring us a complete understanding of paintings of the Goryeo period, which are unfortunately missing today. I believe that it is required to make particular efforts for paying more attention to newly excavated Chinese mural paintings as well as for maintaining a scholarly attitude toward comparing the iconographic and stylistic languages of both Korean and Chinese mural paintings.